

2/26/17

설교 제목: 욥의 대답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욥기 23:1-17

- (욥 23:1)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 (욥 23:2)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 (욥 23:3)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 (욥 23:4)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 (욥 23:5)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 (욥 23:6)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 (욥 23:7)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을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 (욥 23:8)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 (욥 23:9)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뵈을 수 없구나
- (욥 23:1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 (욥 23:11)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 (욥 23:12)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 (욥 23:13)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 (욥 23:14)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절관주** 살전 3:3
- (욥 23:15)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 (욥 23:16)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욥 23:17)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환난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붙잡고 기도하며 위로받는 말씀으로 특별히 다음 구절은 우리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세상 고통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딜 수 있게 한 고전과 같은 말씀입니다.

(욥 23:1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도 이때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흘린 눈물을 다 모은다면 아마 족히 강을 이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좀 민망한 말을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의 본래 의미가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계셔서 은혜를 받은 것과 좀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각 성경의 번역을 보겠습니다.

개역 성경: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새번역: 털고 털어도 성경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천주교 성경: 나를 시금해 보시면 내가 순금으로 나오련마는

KJV: (when) he hath tried me, I shell come forth as gold.

NIV: when he has tested me, I will come forth as gold.

NASB: when he has tried me, I shall come forth as gold.

개역 성경에서 '단련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본래 원어인 히브리어로 '시험하다, 검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영어 성경들을 보시면 이것을 'discipline'이 아니고 'try or test'로 번역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개역 성경을 본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시련을 통해서 단련시키시는 것이고 이 시련을 이겨내며는 내가 정금같이 순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해석해

왔는데 실제로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나를 시험해 보아라 나는 본래부터 순금처럼 깨끗하고 결백한 사람으로 판명될 것이다'라고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이와같이 원래의 뜻대로 바르게 해석이 될 때 우리는 본문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욥기 전체의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무죄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 너무 심하구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면 찾아가서 무죄함을 호소해 보겠건만 도무지 어디에 계신지 찾을 수가 없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잘 알고 계실터 나를 평가해 보면 내가 순금같이 깨끗함을 아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탄원하지 못해 괴로와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자신은 무죄한데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으니 낙심되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허락하셨고 욥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견디어 냄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후에 2 배의 복을 받게 되었다. 우리도 세상에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견디어 내면 후에 정금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주실 것이다'라고 해석합니다만 이 해석은 바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기는 욥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괴로와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욥처럼 이유없는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이 고통을 통해 네가 정금같이 단련될 것이니 이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잘 참고 견디어야 한다"라고 선불리 위로하는 것은 어찌면 어설픈 종교적인 가르침으로 욥을 야단치고 훈계하려고 한 욥의 세 친구들과 다를 바 없는 일인지도 모릅니다.